

고전적 상징의 건축 표현

Architectural Expression of Classical Symbol

—임장렬作 미금 시청사—

李範宰/단국대 교수

by Lee, Peom-Jae

건축은 현재 모든 문화상황의 집적일 수 밖에 없다.

당시 그 사회의 개념, 기술, 가치관이 그대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현상의 겹침들이 모든 제반 요소를 포용하고 있다 하겠다. 90년대 중반에 이르는 한국건축의 현상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현상이라기보다는 실상이라고 하겠다. 많은 나라들에서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새로운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던 것도 이러한 건축의 속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다. 근대건축가들의 역할이 더 이상 이해되지 못하는 시기가 오자 건축가들이 단순히 기능자로서의 위치로 전락할 것인가, 또는 종합적 사상가로서 그 역할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세계는 이미 앨빈·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넘어서서, 정보가 더이상 한사람의 독특한 영역을 확보해 주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지 못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정보의 공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엄청난 하이테크의 발전은 지적인 능력과 정보확보의 다수가 중요하던 정보화사회로부터, 탈 정보화시대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부터, 점차 창의적이고 개성화된 인간이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국제화라는 것은 결국은 종족화 또는 민족개별화란 이야기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건축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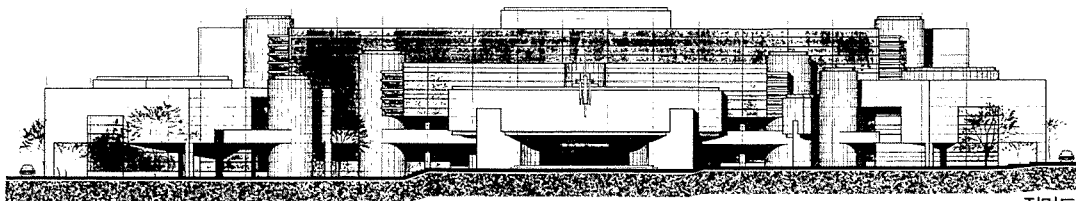
건축사는 결국 또 다른 의미—근대 건축사의 독보적 사상가로서의—로서의 종합자(Conductor)가 되어야 한다. 이는 창의성과 개별화가 철저한 프로듀서(P.D)와 같은 것이 될 지 모른다.

금년도 아카데미상을 휩쓴 스피버그는 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이전에는 20세기 후반의 영화 하이테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주저하지않고 영화에 하이테크를 도입함으로써 그야말로 정보화시대에 영화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그 절정에, 그는 180°역전하여, 마치 시대를 30년이나 되돌린 것처럼, 흑백의 영상으로, 인간의 본연을 파고드는 새로운 복귀를 하였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창의력있는 사고’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개별화된 언어’라고 하겠다. 이것이 21세기를 의미하는 ‘Vision’이라 하겠다. 21세기는 ‘비전(vision)’의 시기라고 한다.

‘창조력’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기술과 정보를 세계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되면 결국 ‘창조력 또는 창의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

건축에 있어서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창의력’과 ‘미래에의 개념과 제안—즉 vision’에 의한 스피버그류의 ‘보다 인간적인’어떤 것의 애정과 이를 위한 ‘통합’및 ‘조정’이 어떠한가에 있을 것이다.

1. 미금 시청은 연면적이 4,000평이 되는 건축물이다. 건축물은 3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다. 본관, 보건소, 의회동이며, 운동장, 테니스장및 주차장들이 개방된 장소(open space)를 형성하고 있다. 설계자인 건축사 자신의 설명을 들자면 이렇게 배치한 것은 “한국적 공간 배치개념에 따라 진입공간, 시민광장, 본관동 순으로 배치하여 시청사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중략... 시민광장을 우리 고유의 안마당 개념인 중정으로 형성,



정면도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진입부의 U턴 도로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중략...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선 이 미금시 청사는 경춘가도에 면해있다. 주 도로와 직교하고 북측에 위치하는 대지는 주위가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나 곧 시가지화 할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대지전체가 하나의 의미있는 공간으로서 인식되어지고 있지 않다.

건축물의 위치를 정해놓고 건축물주위의 비어 있는 ‘땅’에 주차장과 운동장 등을 그야말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배치도를 인지하고 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는 이 미금시 청사가 위치한 대지의 공간적 개념을 터득할 도리가 없다. 배치의 설명을 보고, 실제로의 답사견학후에 생기는 몇가지 의문을 피력한다면, 첫째, 미금시 청사라는 공공 건물의 배치에 우리나라 공간 배치개념을 어찌서 적용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보다 더 부연한다면, 우리나라 공간 배치개념은 도식상이나 형식상으로는 본 시청 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과정적 공간들을 갖는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형태적, 도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스케일과 공간의 느낌들을 포함한 극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하겠다. 도로변에 위치한 주차장의 공간과 U턴 하도록 되어있는 극히 기능적인 진입공간은 도로공간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설명에 나오는 시민광장을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다. 중정은 ‘에워싸여진’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 이 건축물앞의 넓은 공터는 도저히 ‘에워싸여진’느낌이 나는 중정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특히 우리고유의 안마당 개념으로 이해되기 힘들며, 이 공간이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시민광장’은 깊이가 너무 작고, 좌우가 벌어진 ‘벌어진 옥외공간’이 되고 말았다. 오히려 ‘중정’주위에 조경을 하여 나무를 심는 것으로 에워진 느낌을 갖는 안마당개념을 실현하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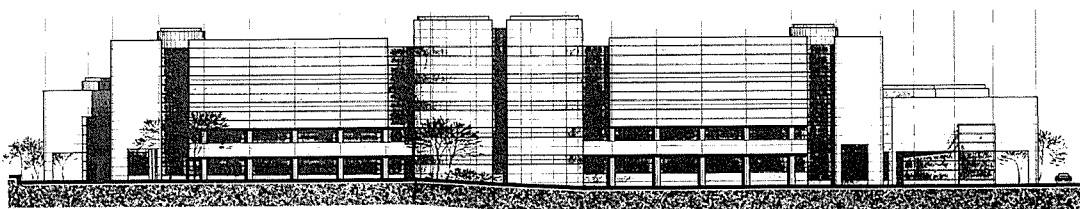
것보다는 이왕에 시도한 레벨(Level)차를 더 두어서, 이것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된다.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위험성은 한국적 공간 배치개념이라는 극히 피상적인 형태적 형상을 그대로 평면적인 판(板)위에 그려놓고 마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주차장이 여러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기능상으로 보다 토지의 이용상, 효율적으로 볼 수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이 위치한 공간들은 각기의 ‘창조적’의미를 가져야 함에도 이 각 주차장의 독특한 개별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각기 건물주위에 필요에 의한 위치에 산재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도로에서 진입할 때 주차장을 좌우에 두고 또 U턴하는 중앙 교차로를 지나서 본관에 진입해야하는 건조한(dry) 느낌을 없애 버릴 수는 없었는지? 시민의 광장을 정말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있는 개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로에서 본관까지 보도로 연결되어, 시민들이 걸어서 차근 차근히 주위 공간을 느끼면서 본관에 들어갈 수는 정말 없었는 지를 묻고 싶다.

2. 시청사의 상징성이란 무엇인가?

설계자 자신도 시청사의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 같다. 여기서 상징성이란,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인지? 또는 주위의 환경에 대한 독특한 ‘이미지’를 갖는다는 뜻인지 명확하지 않다. 모든 건축물은 ‘상징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는 건축이 갖는 하나의 요소와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것이 건축의 비전(vision)으로서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설계자로서의 입장이 명확치 않다. 물론 실제 건축물자체가 갖는 독특한 ‘이미지’를 느끼고 인지하는 것이 꼭 필설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건축물에서 ‘상징성’이 무엇인가를 예의 주시 관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 건축물에서의 상징성은, 배치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우리공간 배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평면’을



배면도

‘원·원호·삼각형의 기하학적 요소와 결합’하여 신도시의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 이상을 표현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순수 기하학적 형태의 집합에서 나오는 순수공간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현되었는데에서 상징성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수평성에 대한 수직성의 극적대비’에서 ‘상징성’을 찾는 것인가? 또는 ‘좌우 대칭형의 입면구성’으로 ‘균제된 매스의 안정감’을 추구한데서 ‘상징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상징성’이 모든 건축물이 갖는 속성이라 할지라도 이 의미는 비교적인 값어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다른 건축물과 무엇이 다른가가 중요하다. 무엇이 다른가? 이 시정사는 다른 건축물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명제제기에 대한 해답이 쉽게 구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수평이 강조된 유리벽(유리창)과 유리 사이사이 수평의 가는 띠는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건축물들을 구성하는 하나의 모티브(Motive)인 것은 사실이다.

설계자 자신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형상적인 개념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다. 하늘이 반사되거나, 하늘이 흡수되는 듯한 넓은 유리창과 이 유리를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수평띠요소의 처리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주고 있다. 특히 원통형의 계단실에 가서 박히는 수평 가(假) 프레임(Frame-가보/假標)이 햇빛에 의해 그림자를 건축물전체에 드리우는 상황은 우리에게 ‘잔잔한 과거에의 회상과, 현 시대의 섬세한 즐거움’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것은 자칫 시정사라는 공공 건축에서 과중하게 압도될 수 있는 이미지를 잘게 해체해서 ‘시민들’에게 의미있는 ‘파편’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간결’하고도 ‘의미’있는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것이 ‘상징성’의 가장 원초적인 ‘개념’또는 ‘요소’였다면, 보다 더 이것에 대한 ‘인용’과 ‘적용’에 과감했어야 했으며, 그것이 ‘무엇’인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그 ‘무엇’인가를 명확히 나타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세 덩어리의 건축물은, 바꾸어 말하면 세개의 기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가지 의문은 세가지 기능이 반드시 이렇게 세가지 덩어리로 각각의 건축물로 분리되었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세 덩어리는 서로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도 한개층에서만 연결되어 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연결의 심도는 그다지 깊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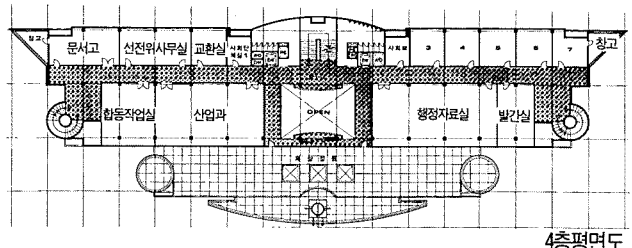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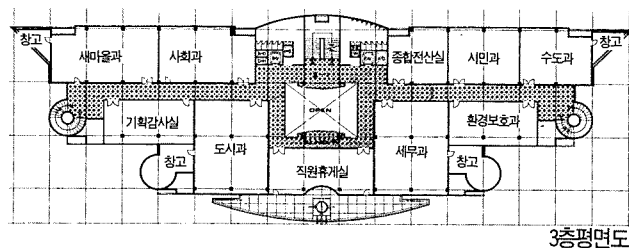
이 점들은 필자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것이지만, 우선 이렇게 느슨한 연결 정도라면 연결통로(브릿지)가 보다 더 의미있는 장소화 되었으면 싶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세 덩어리의 건축물이 각각 제 나름대로 계획되고 마치 못해서 각각의 건축물이 연결된 것 같다는 뜻이다.

또 하나, 그 연계관계가 어찌됐던 이 세가지 건축물은 한 대지에 존재하는 구성의 요소들이다. 즉 한 대지에 공공건축물의 복합공간(complex)을 형성한다는 뜻이다.

세가지 건축물들의 복합체로 볼 것인가? 또는 한 덩어리의 건축물인데 기능과 공간의 분할필요성 때문에 브릿지가 필요했던 것인가?

세가지 건축물들의 복합체로 본다면 보다 더 매스(Mass)와 공간의 독자성(각각의 건축물의)이 제시되고, 이의 연결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럴 때 아무리 기능의 연결이 서로 느슨하다고 해도 내부 공간의 일관성이 있어야 했던 것이고, 한 덩어리의 건축물이었다면 그 연결복도(브릿지)의 길이와 폭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다.

현재의 브릿지는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강한 자극력(연결성)도 없고, 공간과 공간의 이미지를 구별하는 구분력(Divide Quality)도 상실되어진 것같이 보인다. 한층만이 연결된 브릿지로서는 연결성도, 분리성도



강렬하게 느껴지지 못한다. 브릿지공간의 의미가 명확해졌으면 한다.

4. 본관 내부 로비공간은 3층까지 상부로 Open되어 있다. 현관 로비에 들어가면 안내가 있어서 시청사의 공간 형성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3층까지 Open된 공간은 4층 바닥으로 막혀져 있다. 이는 마땅히 뚫려져야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원래의 계획의도는 4층 바닥도 Open되고 옥상에서부터, Sky Light을 통해 자연채광이 되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대야지만 이 증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건축물내부의 의미있는 증정공간이 되며, 로비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건설과정에서 변질된 것이라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 본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회 건물에도 이와 같은 공간이 한군데 있는 데 오히려 이곳의 공간에 대한 느낌이 현재 본관의 로비공간에 대한 느낌보다 훨씬 좋다. 만일 원래 의도대로 되었다해도, 이 본관의 증정공간에 대하여는 좀더 의미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한다. 단지 상부와 하부가 하나의 공간으로 뚫려져 있다해서 ‘의미’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의 ‘본관 로비 공간’은 그냥 ‘비어있는 장소’로 밖에는 인식되어지지 않는다.

5. 외벽은 석재를 사용하였다.

근대에 들어 보편적인 자재인 동시에, 공공건축물인 경우, 거의 대부분 석재를 즐겨 채택하고 있다. 석재가 공공건축에 즐겨 채택되게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시작되어 목천 독립기념관,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등이 아닌가 싶다.

석재도 여러가지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이 미금시청사의 경우 석재의 사용에 어떠한 설계자의 의지가 있었었는가를 알고 싶었으나, 석재에 대한 일반적인 해(解)이상은 없지 않았나 한다. 석재를 일종의 마감재(Finish Skin)이상으로는 인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평띠(Horizontal Stripe)는 물갈기로 처리한 것이나 주 벽면을 버너마감한것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기 때문이다. 마감의 처리를 가지고 작가의 의도를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없기에 더이상의 평은 분석하기 힘들지만 모든 매스(Mass)를 석재하나라 통일시킨 ‘자재 선택’의 개념이 명확했으면 한다.

6. 미금시청사는 또 하나의 상징적이며 고전적인 상징성을 갖는 건축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는 ‘균제’의 ‘아름다움’, ‘대칭’을 이루는 ‘안정감’, ‘기능적’인 공간의 ‘조합’, 또한 석재를 사용한 무난한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놀랄만한”—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공간적 의미를 발견하기 힘들다.

“무엇이 상징성”인지를 발견하기 힘들다. 어찌서 “원·사각형·대각선으로 돌출되는 평면의 중첩”을 그 구성기법으로 적용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설계자 자신이 아무리 설명한다해도, 이에 대한 수궁이 쉽게 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건축은 ‘건물’과 ‘건물을 둘러싼 기타 공간’으로 양분되어 있다. ‘옥외공간’과 ‘건축의 내부 공간’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중정공간”은 적절하고 적합하게 위치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과연 이 건축에서 설계자는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였는가?

구석구석에 여러가지 섬세한 계획을 하고 민원실 등의 공간을 의미있게 생각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겠다.

